Vol.022

SUNGWOO
HITECH
MAGAZINE

별을 쏘다

2020 + Summer

성우하이텍

CONTENTS

Vol.022 2020+SUMMER

SUNGWOO
HITECH
MAGAZINE

10
NEW TECHNOLOGY

14
HISTORY

20
COVID-19

24
SOCIAL CONTRIBUTION

04 ISSUE & NEWS

08 NEW SUNGWOO
- 미래 성우의 자산을 쌓아가는 시간 "제16회 사내테크데이"

10 NEW TECHNOLOGY
- 미래 자동차 시장 선도할 전기차 부품사로 도약하다
- 국내 최초 알루미늄 용접 기술 적용 제품, 미래를 달리다

14 HISTORY
- 소규모 프레스 제조업체, 미래 자동차 시장 선도할 친환경차 부품사로 - 성우네 43년 역사를 되짚다
- TWB 레이저용접기 시스템 1호기 해체

20 COVID-19
- 성우인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코로나19 예방생활

24 SOCIAL CONTRIBUTION
- 당신들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희망의 원동력

26 HOPE
- 코로나19 팬데믹 악재를 호재로 만든 힘

28 TOGETHER
- '함께'의 가치, 위기에서 더욱 빛나다

30 COLUMN
- 미래 자동차산업과 새로운 길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홍보동영상을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성우하이텍 홍보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성우인, 당신들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지난 6개월
성우하이텍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성우인들 "덕분에" 코로나19의 높은 파고를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
다시 한 번, 성우인의 단합된 힘을 믿습니다!

38
PHOTO ESSAY

42
COMMUNICATION

48
MOVIE

52
GOING

34 CHALLENGE
▸ 성우하이텍 계단왕 선발

38 PHOTO ESSAY
▸ 방구석 1열에서도 즐겁게~
코로나19를 보내는 특별한 방법

42 COMMUNICATION
▸ '호감 가는 동료'와 '꼰대'의 차이를 만드는
직장인 스킬

46 PERSONALITY
▸ 아싸 혹은 인싸? 나는 어떤 유형일까

48 MOVIE
▸ 꿈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다

52 GOING
▸ 여행 문화의 뉴 노멀, 자동차 드라이브 여행!

58 HEALTH
▸ 감염병 예방의 비밀, 면역력을 높여라

별을 쏘다

발행일 2020년 7월 31일 (통권 제22호) **발행인** 이명근 **사보기자** 강승호, 김도형,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정보사업본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미디어줌 (Tel. 051-623-1906)

01. 노사정 공동선언 참여

관련 기사
28p

6월 4일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에서 양산시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이종구 양산지청장, 이문용 대표이사, 도종복 부사장(인사정보사업본부장), 서원석 건진테크 대표(성우하이텍 협력사)가 참석하였다. 해당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양산 지역 노사정이 합심하여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노사와 정부가 서로 배려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견에 이문용 대표이사사장은 지난 40여 년간 여러 차례 어려움을 이겨낸 저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경영환경에서도 노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고심하겠다고 화답했다.

02.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관련 기사
24p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확산되던 3월, ㈜성우하이텍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및 물품을 지원하였다. ㈜성우하이텍과 ㈜아산성우하이텍은 부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시에 2억 원, 아산시에 1억 원을 각각 기부하였다.

3월 19일 부산시청 7층 접견실에서 개최된 성금 전달식에서 "나라 전체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바란다"라며 "기부금이 위기 극복을 위해 땀 흘리는 분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아산시청 시장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응원 및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억 원 전달식을 가졌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쾌척해주신 성금은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잘 사용하여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글로벌 기업 성우하이텍은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사태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위로와 응원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성우하이텍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날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다.

03. 대구시·경주시에 마스크 3만 장 등 기부

㈜성우하이텍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의료용 방호복을 기증하였다. 먼저 3월 30일 대구광역시청에 의료용 마스크 20,000장과 의료용 방호복 300장을 전달하였다. 4월 1일에는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의료용 마스크 10,000장을 기부하였다. 이날 참석한 이규현 이사(성우하이텍 건천 핫스탬핑 공장장)는 "코로나19로 경주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성우하이텍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특히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기부의 뜻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관련 기사 24p

04. 중국 충칭 장수구 정부 마스크 기부

관련 기사 24p

글로벌기업 성우하이텍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승을 떨치던 2월 10일, 중국 충칭(重慶) 장수구 정부에 마스크(KF94) 10,000개를 기증하였다. 중국 충칭에 법인을 두고 있는 성우하이텍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원했다고 알려진 중국 우한 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충칭 법인 임직원들 및 가족,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가장 먼저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마스크 기증뿐만 아니라 일 2회 공장 전체 소독 작업, 출퇴근/식사 시 전 임직원 체온 확인, 이격거리 식사, 개인 식판 사용 등 철저한 방역 작업에 힘써왔다. 이런 노력으로 중국 지역 코로나19 발생 후 다른 업체에 비해 빨리 재생산 허가를 받아 2월 16일부터 정식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난 2월 27일에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하여 소개되었다.

전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성우하이텍은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05. 코로나 19 방역 활동 철저

관련 기사
20p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소식이 전해지던 2월 27일 ㈜성우하이텍은 긴급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방지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예방대책 마련, 철저한 관리 시행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공지사항>을 발송하여 대내외 현황, 당사 조치 사항,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였고, 전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 방역을 실시하였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마스크를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출입 시 체온 측정, 식사 시 가림막 이용, 지문 타각 대용 카드 발급 등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해외출장 복귀 직원들에게 응원의 편지와 물품을 전달하였다.

06. 제39기 주주총회 개최

㈜성우하이텍 제39기 정기주주총회가 3월 27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감사 및 영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이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승인하였다.

이문용 대표이사사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노사의 일치단결된 노력과 주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 유럽, 북중미의 주요거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중국 중경 및 창주 생산 공장의 본격적인 양산과 인도 신 공장 투자확대로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며 2019년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올 한 해도 경영환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R&D 투자 및 친환경차(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 변화된 트렌드에 발맞춘 친환경차 관련 신제품 개발·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신기술, 신제품으로 최고의 글로벌 부품사로 거듭나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07. 성우하이텍, 양산시 이웃돕기 후원물품 기탁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성우하이텍이 2월 20일 양산시를 방문하여 1,000만 원 상당 이불 100채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물품은 성우하이텍이 위치한 양산시 웅상 4개 동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었다.

성우하이텍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성우공동모금'을 운영하고 있다. '성우공동모금'은 매년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여 왔고, 매주 착한 이웃 나눔 냉장고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은 지역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08. "성우하이텍 계단왕" 선발대회 개최

관련 기사 34p

㈜성우하이텍은 3월 25일부터 "계단왕" 앱(APP)을 통하여 전 임직원들에게 계단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계단운동은 오랜 기간 검증된 다이어트 방법일 뿐만 아니라, 폐와 심장 기능이 강해지고, 하체 근육 강화를 통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게 되어 관절염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사용을 줄여 에너지 절감을 통해 지구 환경 살리기에도 동참하게 되고, 자연스레 전력비 사용도 줄일 수 있다.

㈜성우하이텍 "계단왕" 행사는 회사 내 계단 이외에도 집계되고 있어 근무시간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매월 우수자를 선발, 시상식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미래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자동차'로 대표된다.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자동차는 이미 개발 완료 단계이며, 자동차업계는 차체 경량화를 실현하는 프레임 제작 및 전기 자동차 연비 개선에 도움을 줄 경량화 배터리팩 기술 등 다양한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제16회 사내 테크데이

미래 성우의 자산을 쌓아가는 시간

삶을 바꿀 아이디어의 탄생

매년 여름 절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20세기 인류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고 평가되는 에어컨 개발자, 윌리스 캐리어(Willis Carrier)이다. 최초의 에어컨은 지금과 달리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기계 설비들이 잘 돌아가도록 해주는 장비였다. 캐리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계에 적용하던 기술을 인간 삶에 적용하여 현재의 에어컨을 탄생시켰다. 에어컨 개발 한 해 전인 입사 초기, 캐리어는 난방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아 기술자들도 포기한 연구에 매진하여 설계에 성공했다. 덕분에 4만 달러의 재정을 아낀 회사는 입사 1년도 안 된 캐리어에게 실험실 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오로지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진행한 파격 인사였다. 이는 캐리어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 혁신 기술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명근 회장의 제안으로 첫발을 뗀 '사내테크데이'는 이러한 정신과 궤를 같이 한다.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이 사내테크데이이다"라는 이명근 회장의 강평에서도 드러나듯, 사내테크데이는 혁신 신기술을 전사가 공유하여 성우하이텍의 기술 수준 향상 및 기술개발에 대한 전사적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아이디어가 가능성을 품은 씨앗이라면, 이를 키우고 크게 자라나게 할 비옥한 토양이 사내테크데이인 셈이다.

참여에 별도의 기준이나 제한 없이 성우하이텍 소속이라면 누구나 발표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비용절감 및 수평 전개, 적용 시점, 독창성, 양산성, 개발 노력을 포함한 8가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 시상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발표 한 건 한 건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며 강평한 이명근 회장은 직원들의 건강까지 살피는 세심함으로 참가자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

"1회 때와 비교해 4년간 아주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기차, 수소차와 관련해 성우의 미래 자원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해나가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할 시기인데, 연구 개발도 좋지만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우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 가치를 드높일 의미 있는 시간

사내테크데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 '생산성 향상', '투자비 절감'이다. 지난 4년간 테크데이에서 발표한 대다수의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이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콘셉트, 설계, 해석)에서 발표가 진행되다 보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사적 사전 검증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각 팀의 요청 사항, 예상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7월 3일 진행된 16회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 번 미뤄지다 개인 간 거리를 띄울 수 있는 대강당으로 옮겨 진행되었다. 이날 총 10건의 혁신 아이디어 발표가 있었으며, '전기차 바디설계 기술'과 같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자가 말하는 "사내테크데이"

공법혁신팀 **조재우** 과장

이번 16회 대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를 띄울 수 있는 대강당으로 옮기는 등 행사 진행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발표에 참여하는 팀이 다소 한정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많은 팀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 교류를 통해 함께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 선도할 전기차 부품사로 도약하다

국내 자동차 차체 분야를 선도해온 성우하이텍이 축적된 경량화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분야에 진출했다.

BATTERY PACK

충전소가 주유소에 비해 훨씬 적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1회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거리, 연비가 전기차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기차는 석유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가 주유소에 비해 훨씬 적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1회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거리, 연비가 전기차의 성패를 좌우한다. 기존 자동차와 달리 엔진, 미션, 머플러 등이 없어지는 전기차는 구동모터, 제어장치, 배터리팩이 추가로 구성되는데, 특히 배터리팩이 장착되면 차체 총 중량이 증가하게 되어 차량의 주행거리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배터리팩이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가벼워야, 연비를 향상시키고 전기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가장 힘이 센 사람이나 영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다.
- 찰스 다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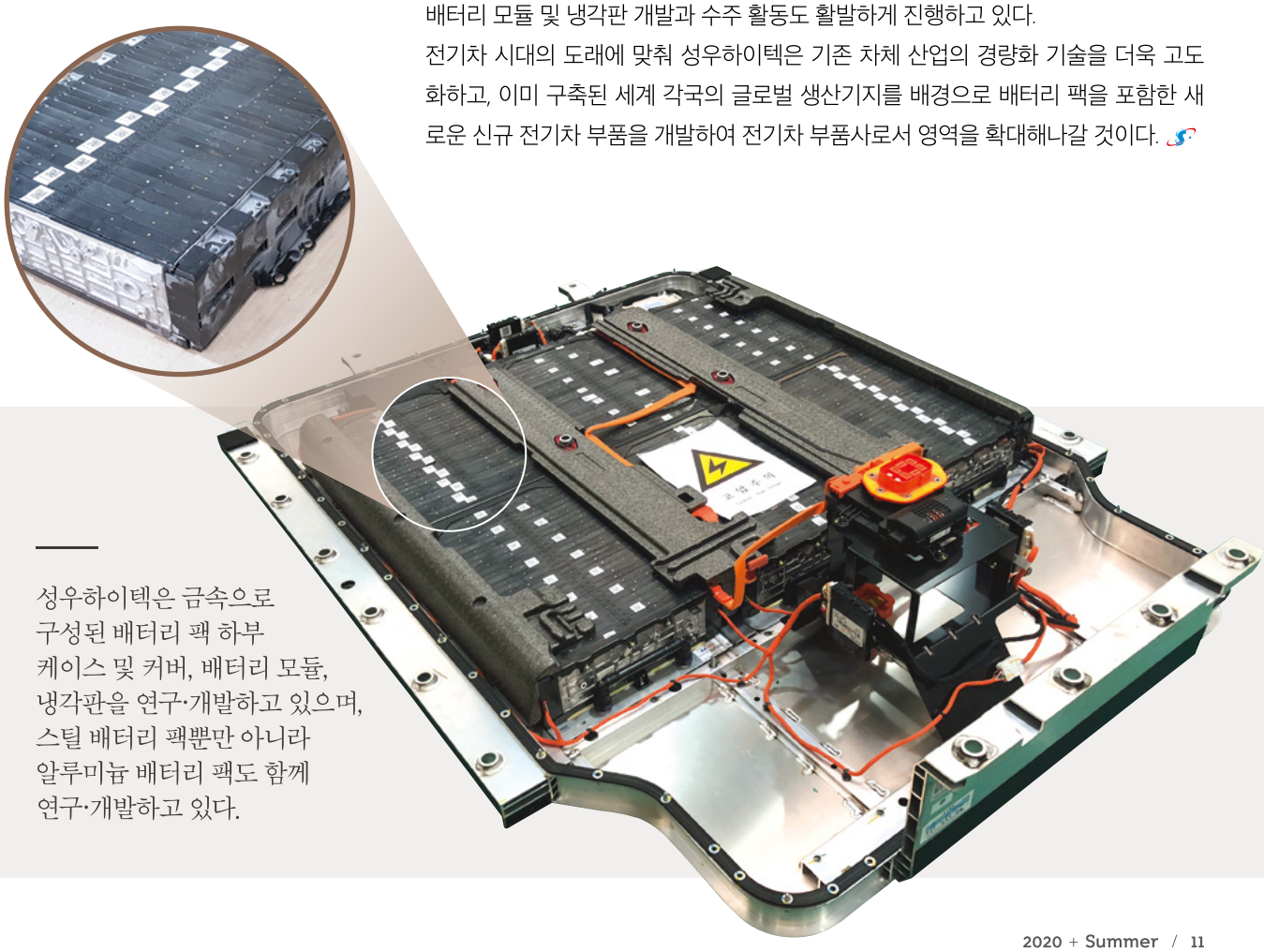
국내 차체 업계에서 최초로 R&D센터를 건립한 성우하이텍은 기가스틸, 알루미늄, 마그네슘, CFRP(Carbon Fiber Reinforcement Plastic)와 같은 경량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오랜 시간 연구하고 있다. TWB, 롤포밍, 핫스탬핑 기술로 성형된 기존의 경량소재 제품에 기계적 체결과 레이저 접합기술을 접목, 차체의 경량화 기술에 성공한 성우하이텍은 업계를 리드하여 왔다. 이 같은 성우하이텍의 축적된 경량화 기술은 전기차 차체뿐만 아니라 배터리팩에도 접목이 가능하다.

배터리팩이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가벼워야, 연비를 향상시키고 전기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배터리팩은 전기차의 구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부품으로서 배터리팩 내부는 배터리셀, 배터리 모듈, 냉각판, 버스바, 냉각호스,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PRA(Power Relay Assembly)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성우하이텍은 금속으로 구성된 배터리 팩 하부 케이스 및 커버, 배터리 모듈, 냉각판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틸 배터리 팩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배터리 팩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은 2018년 중순 80kWh급 알루미늄 배터리 팩 자체개발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현대모비스에서 2021년 중순 유럽으로 공급될 수소 연료전지 트럭의 배터리 팩을 수주하였다. LG화학에서는 2022년 유럽과 북미에 공급될 배터리 모듈 CASE를 수주하여 양산 공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고객사와 함께 신 개념 배터리 팩, 배터리 모듈 및 냉각판 개발과 수주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 시대의 도래에 맞춰 성우하이텍은 기존 차체 산업의 경량화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이미 구축된 세계 각국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배경으로 배터리 팩을 포함한 새로운 신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여 전기차 부품사로서 영역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성우하이텍은 금속으로 구성된 배터리 팩 하부 케이스 및 커버, 배터리 모듈, 냉각판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스틸 배터리 팩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배터리 팩도 함께 연구·개발하고 있다.

국내 최초 알루미늄 용접 기술 적용 제품, 미래를 달리다

미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성우하이텍은 국내 최초 레이저 알루미늄 용접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제네시스 GV80과 G80에 공급하고 있다.

ALUMINUM DOOR

▲ 제네시스 GV80(20년 1월 출시, 프로젝트명 JX1)과 제네시스 G80(20년 3월 출시, 프로젝트명 RG3)은 성우하이텍에서 공급하는 알루미늄 차체(도어, 범퍼, 후드 등)를 사용하고 있다.

제네시스 GV80(20년 1월 출시, 프로젝트명 JX1)과 제네시스 G80(20년 3월 출시, 프로젝트명 RG3)은 성우하이텍에서 공급하는 알루미늄 차체(도어, 범퍼, 후드 등)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며 세계적으로 차량의 무게를 줄이려는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다. 성우하이텍은 철강보다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 원격식(비접촉식, without wire) 레이저 용접에 성공하여 차체를 생산하였다.

알루미늄 소재

- 연비 향상(철강 무게의 1/3)
- 뛰어난 감폭 능력
  운전자의 피로도 ⇩ / 안정성⇧
- 부식 위험 ⇩

성우하이텍 알루미늄 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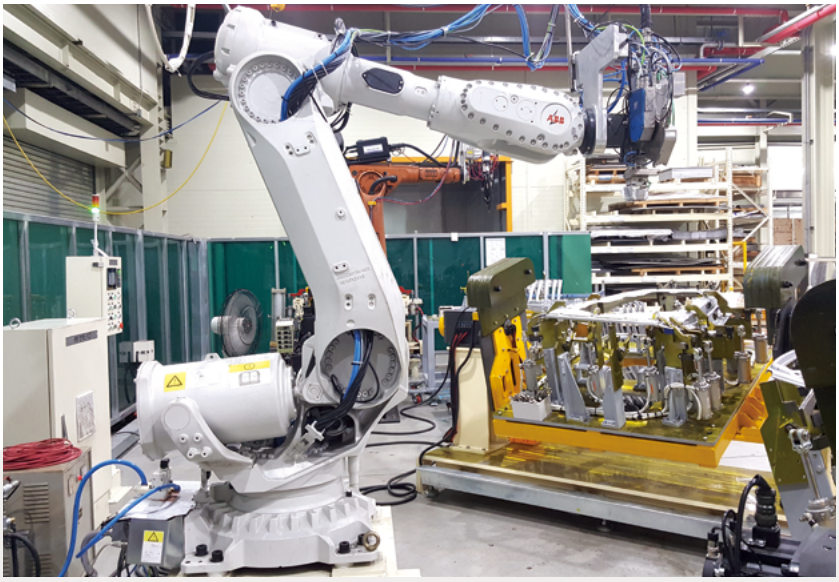
- 기존의 단점 극복한 SPR-Self Piercing Rivet, AL SPOT용접, RJN-Rivet Joining Nut 접합 방법 접목

알루미늄은 철강 무게의 1/3로 가벼워 차량의 연비를 향상시키고, 진동의 감폭 능력(DAMPING)이 뛰어나 운행 중 전달되는 진동을 줄임으로써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고 탑승자의 안전에도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자연 코팅막을 생성, 철강에 비해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좋은 소재가 왜 지금껏 자동차 차체로 쓰이지 않았던 것일까? 대부분 철강에 비하여 비싼 가격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러한 경제성 문제는 소득 증가와 차량의 고급화 경향으로 많이 완화되었다. 본질적인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었다. 알루미늄은 용융점이 낮은 금속이어서 기존 자동차 차체에 사용하던 스팟(SPOT) 용접으로 접합하기 어려웠고, 전극전위가 낮아 이중 금속과 접촉 시 부식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어 다루기 어려운 소재 중에 하나로 평가되어왔다. 게다가 철강보다 강도가 낮아 동일한 두께로 동일한 강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있다. 성우하이텍은 오랜 연구와 실험 끝에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한 접합방법(SPR-Self Piercing Rivet, AL SPOT용접, RJN-Rivet Joining Nut)들을 접목시켜 알루미늄 차체 개발에 성공하였고, 제네시스 GV80과 G80에 공급하게 되었다.

성우하이텍은 친환경 수요에 발맞춘 차량 경량화 소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미래자동차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알루미늄 도어



▲ 원격레이저 용접_ 공정, 설비

▲ 알루미늄 범퍼

SUNGWOO 43YEARS

소규모 프레스 제조업체, 미래 자동차 시장 선도할 친환경차 부품사로

성우네 43년 역사를 되짚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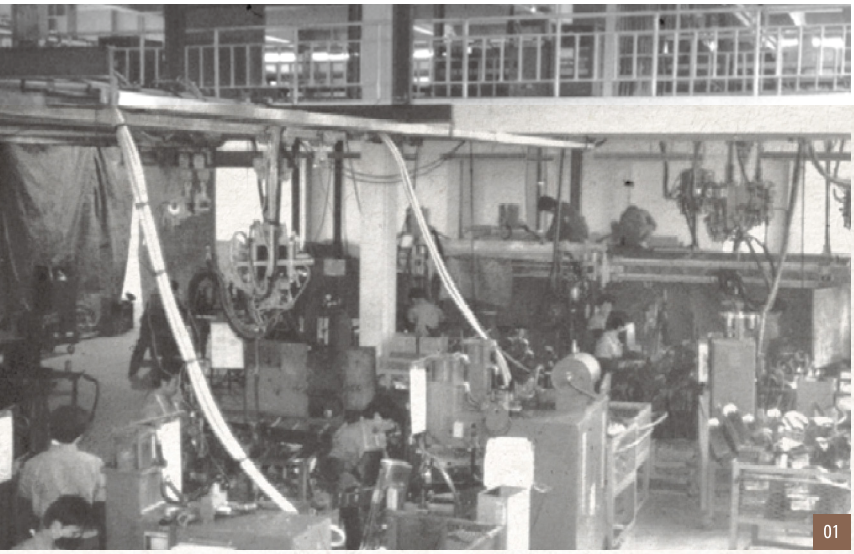
글 / **문해준 대리**(인사노무팀)

국민 소득(GNP) 1천 달러 및 수출 1백억 달러 달성을 성공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한 1977년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서 성우는 태어났다(0세 / 당시 이름 '성우금속공업사'). 당시 성우네는 농기구 및 주방기구를 생산하던 소규모 프레스 제조업체였다. 국가적으로는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던 시기였지만, 농사도 제법 지었고 집집마다 소득도 높아져 주방기구 판매도 잘되었다. 이득이 꽤 많이 남은 시기였다.

▲ 2014년 설립된 독일 WMU B 전경

▼ 성우하이텍 양산(서창) 사업장

현재까지 이어 온 길을 알아야만
미래를 분명하고 현명하게 계획할 수 있다.
- 아들라이 E. 스티븐슨



01. 초기 성우금속공업사 공장 모습
02. 종무식(1986년)
03. 체육대회(1988년)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성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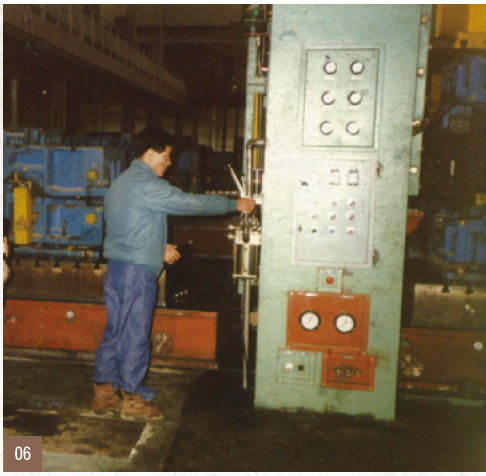
성우가 태어난 지 1년 남짓, 큰 위기가 닥쳐왔다. '제2차 석유파동' 때문이었다. 1978년 12월,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의에서 석유 가격 인상을 결정했고, 중동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이란은 석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배럴당 12.7달러였던 국제유가는 현물시장에서 40달러에 육박할 정도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1980년 경제성장률은 -4.8%를 기록했는데, 이전까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은 6·25 전쟁 이후인 56년 기록한 -1.4%였다. 석유 제품 59%, 공산품 가격 48%, 국내 도매물가 23.8% 상승에 이를 정도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었다. 지독히 어려운 시기에도 성우네는 버텼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대로 져버릴 순 없었다.

석유파동의 여파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1981년, 성우도 주민등록을 획득했다('성우금속'으로 법인 등록). 성우네는 여전히 농기구 등을 제조해왔지만, 눈여겨본 분야가 있었다. 성우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 전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로 고유 모델 자동차인 '포니'가 나온 것이었다. 19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이 잇따랐다. 자동차 산업이 유망할 것 같았다. 성우네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용기만으로 잘 되는 사업을 접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없었다. 성우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의 생계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우가 6세가 되던 1983년, 현대자동차의 '스텔라' 탄생을 계기로 고심 끝에 수익성 좋던 주방기구 사업을 접고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 6년간 해오던 노하우, 사업망을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성우는 '차체'를 제작하기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스텔라는 '국산 최초 중형차'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출시 초반 인기 폭발이었다. 스텔라는 13년 7개월 동안 생산되어 현대자동차에서 세 번째로 오랜 기간 생산되었다. 시작이 좋았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시기적으로 운도 좋았다. 80년대 중반 '3저 현상'(저달러·저유가·저금리)으로 3년 연속 연 10% 이상 고도성장을 했고(86~88년), 89년까지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컬러텔레비전 시대의 개막과 88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중문화에도 화려한 색깔과 다양한 디자인이 적용되며 소비문화가 진작, 자동차 산업도 더욱 발전했다. 당시에는 '마이카', '오너드라이버'란 말이 유행했고, 자동차 보급률이 크게 늘었다. 성우네는 자동차 산업 성장에 기여하며,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었다.

04



06

05

07

04. 기술연구소 설립 10주년(2004년)
05. 90년대 초 정관공장에서
06. 정관공장 최초 프레스800(1989년)
07. 창립 12주년 기념식(1989년)

'차체 잘 만드는 회사'를 향한 투자

90년을 맞이하기 한 해 전, 이사를 결정했다. 당시 1년 매출액에 버금가는 설비투자를 통해 부산시 기장군 정관으로 공장을 신축·이전했다. 이듬해에는 금형을 전문으로 제작할 수 있는 '오성공업(現 금형공장)'을 설립했다. 이어서 1994년에는 차체업계 최초로 R&D센터를 설립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부품업체는 주문대로 만들기만 하는 역할에 머무르면 된다고 생각했지, 스스로 개발하고 개척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다. 게다가 80년대 중반부터 경제 호황기에 발맞춰 여러 기업들은 외형 확장과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할 때, 성우네는 기업 본연의 목적인 기술개발투자와 생산설비투자에 집중했다. 이는 성우 역사상 닥쳤던 여러 차례의 위기와 변화·혁신의 변곡점에서 큰 자산이 되었다. 성우네는 차체를 정말 잘 만들고 싶었다.

90년대 중반에는 '세계화'라는 말이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였다. 세계의 개방화 추세에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에 발맞춰 96년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성우네도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인도에 동반 진출을 해냈다. 당시, 국내에서 인도에 해외 진출한 자동차업체는 없었으며,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97년 7월 인도에 합작법인 JSL을 설립하여 인도 공략을 시작했다.

인도 진출을 시도한 지 불과 수개월이 지났을 때,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 위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마불사(大馬不死)'라 여겨졌던 대기업들의 연쇄부도가 발생했고, 승승장구하던 자동차 시장도 크게 위축되었다. 수익성이 악화된 자동차 기업은 퇴출되거나 M&A를 통해 재편되었고, 판매량도 급락했다. 성우네도 창립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내릴 때도 성우네는 온 가족이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자 서로 희생과 양보를 했다. 살얼음판을 걷듯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없는 어둠의 시기였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새로운 시기의 서막이 빛나고 있다.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역사의 페이지를 채우는 위기 극복의 순간들

98년 인도공장을 본격 가동한 이후 19개월 만에 현지 전략형 모델인 상트로(국내명 아토스)가 인도 소형차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며 효자 노릇을 했다. 국내 역시 전 사업장이 어려운 가운데 다대공장(現 지사공장)에서 생산한 '마티즈(프로젝트명 M100)'로 버틸 수 있었다. '금빛' 마티즈는 IMF로 지쳐 있던 소비자들의 소망을 담아 국내 경차 시장을 석권했다. 위기에 처한 성우네에 비친 한 줄기 서광이었다. 이를 발판으로 자신감을 가진 성우네는 2002년 중국 베이징과 우시, 2004년 체코 오스트라바, 2006년 중국 옌청과 슬로바키아 질리나, 2008년 러시아 상트 페테부르크, 2012년 독일 한뮌덴, 2014년 멕시코 몬테레이, 2015년 중국 창주와 충칭, 2017년 중국 심양까지 진출했다. 세계를 향한 성우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현대/기아차 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GM, 2008년 폭스바겐, 2009년 벤츠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일찍이 R&D 센터를 설립하여 쌓은 업계 최고 기술력과 성우네 가족들의 노력, 그리고 희생 덕분이었다.

세계를 누비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던 성우네에 또다시 예고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것은 2008년이었다. 성우네가 30세를 갓 넘긴 시기였다. 리먼 브라더스 부도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것이다. 국제 유가는 폭등했고, 미국과 유럽은 불황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도 반 토막이 나고, 수출·수입 물량도 현저히 줄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존립을 위해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세계 자동차 시장도 차갑게 얼어붙었다. 성우네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비교적 피해가 적은 중국 시장에 집중 투자한 탓에 피해가 적었고, 가족들의 양보와 배려 덕분에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의 투자는 이후 사드 사태로 또다시 위기가 되어 돌아왔고, 가족들의 양보와 배려는 이후 원상회복에 더하여 보상으로 돌아왔다. 좋았던 일이 나빠지기도 하고, 나빠졌던 일이 좋은 일로 돌아오기도 하고, 성우네도 새옹지마(塞翁之馬)의 고사를 그대로 겪어왔다.

성우네 창립 43년인
2020년.

또다시 세계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이 그것이다. 유례없는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 자동차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이 바이러스가 소멸한다고 해도 비교적 고가인 자동차의 특성상 곧바로 소비가 늘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게다가 수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친환경 바람으로 자동차 시장도 고도화될 것이기에 앞서가는 기업만이 살아날 것이라 예상된다. 다시 한 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눈이 부시게 맑고 화창한 날도, 칠흑 같이 어둡고 서늘한 날도, 온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매서운 추위에 떨던 날도 있었다. 연일 맑기만 한 날도, 연일 어둡기만 한 날도 없었다. 매해 다가오는 초봄처럼 따사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비에 흘딱 젖기도 했었다. 그 가운데에도 시나브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성우네 43년이 그러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40여 년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없을 수 있으랴. 성우네는 위기를 기회로, 창조적 신기술로, 신기술 신제품으로 극복해 왔다. 포스트 코로나,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도 성우네의 저력을 믿는다.

2020-

TAILORED WELDED BLANKS

기업이 창업하고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결정적 순간'이 있게 마련이다.
소규모 프레스제조업체였던 성우하이텍은
자동차산업에 진출한 후 1994년
기술연구소(현 R&D센터) 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내실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TWB 레이저 용접기 시스템 1호기 해체

'TWB(Tailored Welded Blanks)
레이저 용접기 시스템 1호기'도
성우기술연구소의 역작 중 하나이다.

국내 레이저 용접 기술의 발전을 이끈 20년

20 YEARS

3월 3일 성우하이텍 서창공장, 20년간 국산 레이저 용접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해온 TWB의 해체·철거 소식에 직원들의 얼굴에도 아쉬움이 비쳤다. TWB 레이저 용접기 시스템 1호기는 1996년 당시 성우기술연구소 소장이던 이문용 대표이사사장이 한국기계연구원(KIMM)과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이다. 두께와 강도, 재질 등이 서로 다른 강판을 적절한 크기와 형상으로 절단하고 레이저로 용접하는 접합기술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두께의 강판을 하나로 용접할 수 있다. 당시 기술연구소는 자동차 연비 향상에 무게를 두고 차량 경량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으로 기존 점용접 생산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동차 경량화에 필요한 용접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 시스템 개발 전에는 고가의 레이저 용접시스템을 유럽에서 수입해 일부 부품에 한정적으로 적용해왔으나, TWB 레이저 용접시스템이 완성된 후로는 전 차종에 적용함으로써 원가 절감에도 효과를 보았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장비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춤으로써 TWB 용접 기술이 적

용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 국가경쟁력도 확보한 것이다. 이 같은 제품의 우수성에 힘입어 2002년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시스템 완성까지 76억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던 만큼 어려움 또한 적지 않았다. 초기에는 레이저 용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많은 시간을 교육·관리에 투자해야 했다. 강판 종류별로 레이저 용접을 표준화하기까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밤낮없이 시운전을 하면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원인을 찾아 수십 차례 토론하면서 결론을 얻었다. 용접장치 핵심기술의 특허 침해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면서 저렴한 운영비로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 기존 용접공법의 기술적·경제적 한계를 한 단계 뛰어넘는 데 성공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장비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춤으로써 TWB 용접 기술이 적용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 국가경쟁력도 확보한 것이다.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의 마중물로서

이처럼 국산 레이저 용접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해왔지만 사용 기간이 20년에 이르다 보니, 작년부터 장비의 가동률이 저하되었다. 자연히 해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3월 3일 해체가 결정되었다. 청춘을 함께한 장비의 해체 소식은 이문용 대표이사사장이나 한국기계연구원 서정 박사에게는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기계연구원이 제작한 기념 영상에서 서정 박사는 "기계연구원과 성우하이텍 연구원들이 새로운 E-Mobility 분야의 레이저 용접 기술을 상업화하고 지금과 같은 새로운 장비 개발도 해서 국가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용 대표이사사장은 당시 함께 연구했던 기계연구원 서정 박사나 직원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며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하였다.

"이 시스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알루미늄 도어에 레이저 용접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TWB 레이저 용접 시스템 자체는 해체되지만 그 기술은 회사에 남아서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밝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우인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코로나19 예방생활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에 의한 이 바이러스성 질환의 확산세는 무서웠다. 중국 당국에서는 우한지역을 폐쇄했지만 2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동아시아뿐 아니라 이란, 이탈리아, 중동과 유럽 대륙으로까지 감염자가 확산되었고,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풍경

2월 17일까지 확진환자가 30명 수준에 머무르며 초기 대응에 성공한 듯 보이던 우리나라의 상황은 2월 20일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급변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 국민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쳤다. 그런 와중에 '국경 폐쇄', '입국 금지 조치' 등을 두고 사회 전반적인 혼란이 야기되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코로나19 공포는 일상을 변화시켰다.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체가 늘고, 개학을 차일피일 미루던 교육당국에서는 4월 9일께야 '온라인 개학'을 단행했다.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학원 등 4대 집단시설은 운영중단이 권고되었다. 사람을 모아야 하는 각종 공연이나 방송은 중단되었고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입국 금지 조치 때문에 발이 묶인 재외 국민을 위해 국적기가 뜨기도 하였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의 기본으로 여겨진 마스크의 품귀현상 역시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방역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 결국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총선을 전후로 하여 일어난 재난지원금 논란 및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이슈에 불을 지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었다.

성우하이텍의 발 빠른 대응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이 본격화되던 2월 27일, ㈜성우하이텍은 긴급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노사가 힘을 모아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예방대책 마련, 철저한 관리 시행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출입 시 체온 측정, 식사 시 가림막 이용, 지문 타각 대용 카드 발급 등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전국적인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마스크를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였고, 10여 차례 '공지 사항'을 발송하여 대내외 현황, 당사 조치 사항,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였다. 전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중인 해외출장 복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원 편지와 물품을 제공한 일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에서 업무 중 불가피하게 복귀한 직원들은 가족 친지와 반갑게 해후하지도 못한 채 외로운 자가격리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에 우리 성우인의 마음을 담아 자가격리 중인 직원들에게 응원의 편지와 물품을 전달한 것이다.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부터 간식거리, 즉석 밥 등 다양하게 구성된 응원 상자는 자가격리를 하며 외롭고 약해진 직원들의 마음을 든든히 채워주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출입 시 체온 측정, 식사 시 가림막 이용, 지문 타각 대용 카드 발급 등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COVID-19

성우인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코로나19 예방생활

For every-one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4월 8일.
5년간 멕시코 주재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입국한
영업관리팀 김주표 과장은 입국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
2주간 자가 격리 시간을 가졌다. 김주표 과장을 만나
2주일간의 자가 격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INTERVIEW

'나'나 '우리'가 아닌 '모두'를 생각하게 된 소중한 시간

영업관리팀
김주표 과장

Q1. 자가 격리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5년간의 멕시코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4월 8일 입국했습니다. 인천에서 기차 편으로 내려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음성 확진을 받아 2주간 집안에서만 생활했어요. 2월초 먼저 입국했던 가족들은 처가댁에서 지냈고요. 원래 3월 말 입국 예정이었는데 북미/남미 지역에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면서 항공노선이 줄줄이 취소됐어요. 그러다 4월 초 극적으로 멕시코-인천 간 항공노선이 열렸고, 입국할 수 있었어요.

Q2. 자가 격리 당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 처음 사흘은 견딜만했죠.(웃음) 푹 자고 일어나서 TV 보고 밥 먹고 게임하다 다시 자고…. 식사는 아내가 문 앞에 가져다놓는 것으로 해결했어요. 그런데 사흘 후부터는 쉽지 않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나 가족들과 통화는 했지만, 같은 공간에 하루 종일 갇혀 있다 보니 시차적응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업무에 복귀해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절로 시차적응이 되는데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일하는 것보다 격리 생활이 더 힘들었어요.

Q3.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 아무래도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게 가장 힘들었죠. 8살, 4살 딸애들을 못 보는 것이요. 입국하자마자 격리생활을 했고, 또 격리가 풀리자마자 출근을 하느라 가족들은 그날 오후에나 볼 수 있었어요. 딸애들을 만나서 안아준 순간에는 울컥했어요. 영상통화는 했지만 애들도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고요.

신이 인간에게 미래를 밝혀주실 그날까지 인간의 모든 지혜는
오직 다음 두 마디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 알렉산드르 뒤마

Q4. 회사에서 준비한 응원 물품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 그야말로 '감동'이었어요. 격리 이틀째쯤 총무안전환경팀 담당자분이 직접 구호물품을 가지고 오셨죠. 미리 전화를 받긴 했는데, 문 앞에 두고 간 물품 상자를 보니 설레더라고요. 상자에는 "성우 가족이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물티슈, 마스크 같은 방역물품부터 즉석밥, 과자, 인스턴트식품, 물, 라면 같은 식품까지 다양했어요. 5년 동안 해외 있다가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여전히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챙겨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뭉클했습니다.

Q5. 격리 기간 느낀 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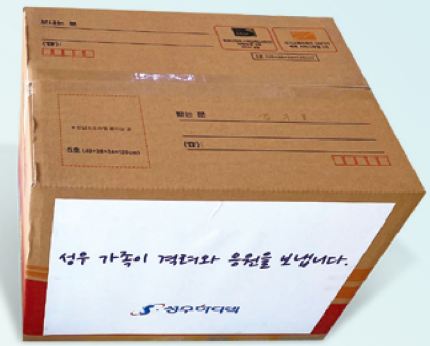
● 인천에 내리는 순간부터 관리가 시작되었어요. 검사 결과 양성이면 격리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휴대폰 어플을 실행해서 하루 두 번씩 체온을 재어 올리고, 두 번 정도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특이사항을 체크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했죠. 제가 입국할 때만 해도 걱정해주던 멕시코의 동료들이 이제는 한국 상황을 보고 저를 부러워할 정도예요. 그쪽은 의료체계도 뒤떨어지고 아직 외출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Q6. 업무 복귀 후 한 달가량 지났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 5년 전에 비하여 주변 동료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제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변한 만큼 마음가짐을 다져야 할 때고요. 이제는 후배 동료들을 제가 챙겨줘야 할 입장이니 만큼, 동료들에게 좋은 선배로서 모범이 되고 싶어요. 5년간 멕시코에서 쌓은 경험을 국내 업무에 접목하여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멕시코에 있을 때보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쌓아주고 싶습니다.

Q7. 자가 격리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보름달이 뜬 날 딸애에게 달을 보면서 소원 빌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모두를 위해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그 말에 사실 좀 놀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나 '우리'만 생각했지 '모두'를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 '모두'를 위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지침을 따른다면 코로나도 더 빨리 종식을 맞지 않을까요? 동료들과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부터 맡은 바를 잘해내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성우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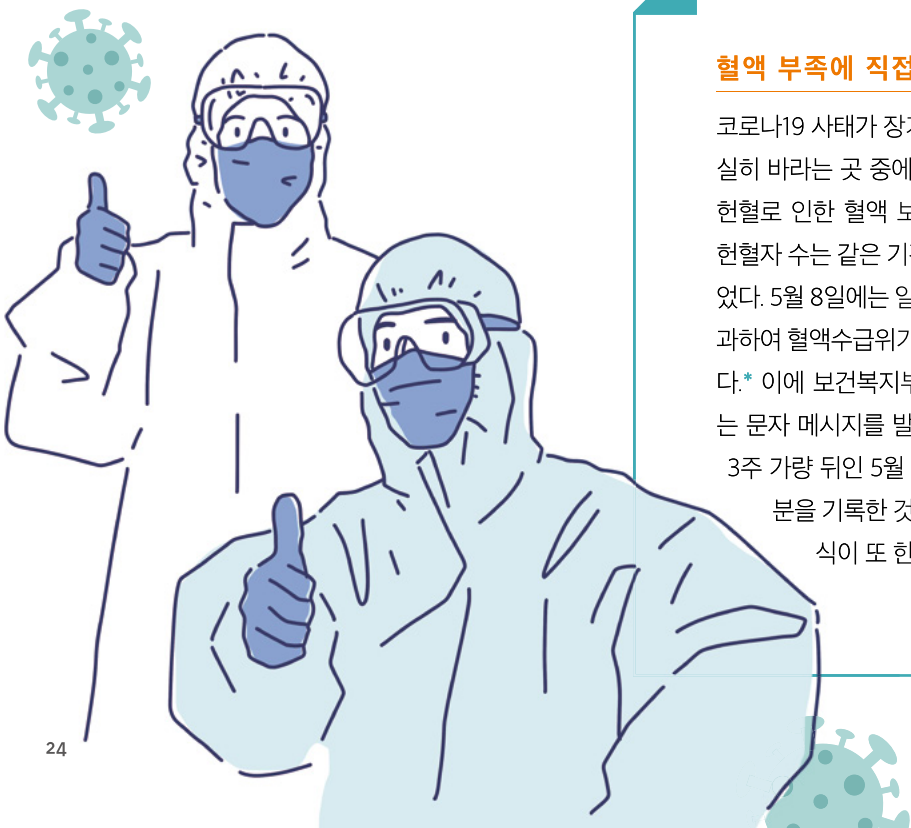
당신들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희망의 원동력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들, 문자 한 통에 팔을 걷어붙인 시민들,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같이 걷기를 선택한 건물주들. 코로나19 사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희망의 실체를 발견하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였다.

기꺼이 대구로 '의료봉사자'

지난 2월 18일을 기점으로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역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대구 경북지역의 의료체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감염 환자의 확산세를 따라잡기에 태부족했고, 인력 및 시설 부족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대구 경북지역을 봉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바로 그때, 감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대구를 찾은 이들이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생업을 뒤로하고 찾아온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이었다. 바람도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환자를 위해 애쓰는 모습들, 땀에 젖은 얼굴 위로 선명히 새겨진 마스크 자국, 그들의 희생정신은 국민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었다.



혈액 부족에 직접 팔 걷어붙인 '국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곳 중에 하나가 의료 기관이다. 급감한 헌혈로 인한 혈액 보유량 부족이 문제였다. 3~4월 헌혈자 수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6만 5천여 명이 줄었다. 5월 8일에는 일일 혈액 보유량이 2.9일분에 불과하여 혈액수급위기단계 중 '주의 단계'에 해당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에게 헌혈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약 3주 가량 뒤인 5월 27일 기준 혈액 보유량이 5.1일분을 기록한 것. 위기의 순간,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또 한 번 빛을 발한 것이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참고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 에이미 반데빌트

임차인과 짐을 나눠진 '착한 건물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소상공인들이었다. 바깥활동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 쇼핑도, 외식도 줄었고 이는 곧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그러자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른바 '착한 건물주운동'이다. 착한 건물주 운동은 지역사회의 상생동반자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임차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눠 지고자 하는 이 운동을 정부도 응원하며 공공기관 임대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코레일·LH·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임대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 모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였고,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세계 속의 기업 성우하이텍 역시 지역사회의 고락(苦樂)을 함께하며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였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전인 2월 10일에 우한 지역과 가까운 중국 충칭(重慶) 장수구 정부에 마스크(KF94) 10,000장을 지급하였고, 이는 중국 지역 언론에 소개되었다. 국내 확산 소식이 알려져 마스크 수급이 어렵던 2월 말 대구/경북 지역 협력업체 30곳에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부산광역시에 2억 원, 아산시에 1억 원, 대구광역시에 마스크 20,000장과 의료용 방호복 300장, 경주시에 마스크 10,000장을 잇따라 기탁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며 우려를 낳았다. 국경 폐쇄 문제, 마스크 공급 문제, 현실로 닥친 경제 위기 등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다. 코로나 발생 후 반년여가 흐른 현재 상황은 반전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법, 이른바 K-방역이 화제가 되며 '방역 모범국'으로서 국격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악재를 호재로 만든 힘

'K-방역'의 핵심 포인트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악재를 이겨내고 폭발적인 확진자수를 안정화한 우리나라의 대응법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통령에게 대응 체계를 문의하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도입하며,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를 원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린 'K-방역'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본다.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블로그
'코로나19 K-방역 지역사회 대응사례'

▶ 확진 현황 및 이동 동선과 의료기관 공개

문자 발송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 현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했고,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 같은 정보 공개는 신종플루(2009년) 및 메르스(2015년) 사태를 겪으며 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 워크스루(Walk-through), 드라이브스루 진료

접수부터 검체 채취까지 'One-Stop 검사방식'을 채택한 워크스루 및 드라이브스루 진료를 통해 검사시간을 단축하고, 대기자 간 전염차단 및 진료 시 의료진을 보호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외부시설에 선별진료소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신속하고도 안전한 진료는 전 세계 감염 예방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 생활치료센터 운영

환자 증상에 따라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분리하여 치료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증상에 맞게 적기에 치료하고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에 대처함으로써,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 자가격리 지원·관리

자가격리 관련 임대 폰을 지원하고 생필품 등 배달서비스를 진행,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격리자들의 생화불편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였다.

KBO '빠던(배트 플립)'

"BTS, 기생충에 이어 KBO 리그가 지구반대편에 상륙했다. 한국 야구는 일본야구에 비해 그동안 덜 알려져 있었지만 확실한 콘텐츠 하나를 갖고 있다. 바로 '배트 플립'이다."

미국 안방을 뒤흔든 KBO '빠던'

5월 8일, <윌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안방에 상륙한 KBO 리그를 이렇게 언급하였다. 야구의 본고장 미국, 메이저리그는 '꿈의 무대'로 불리며 전 세계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런 메이저리그가 약 150년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시즌 개막조차 못했던 것(7월 3일 기준). 야구에 대한 목마름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현지 팬들에게 KBO 리그 개막 소식은 별세상 얘기였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네트워크 ESPN이 발 빠르게 반응했다. 미국 최초의 KBO리그 중계가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개막 경기일, SNS를 타고 다양한 반응이 퍼져나갔다. 트위터리안들은 재빨리 'KBO_IS_WILD' 해시태그를 공유하며 한국 야구의 매력을 알렸다. 특히 주목한 것은 소위 '빠던(배트 던지기·bat flip의 속칭)'이었다. 외국에서는 투수에 대한 무례한 행위로 금기시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한 장면이다. 장타를 날린 타자들이 배트를 던지며 시원하게 선보이는 세리머니로, 자유롭게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선수들의 모습에 야구팬들은 열광했다. 이에 ESPN은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 선수들의 빠던 자세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치어리더들의 흥겨운 응원문화, 지역연고팀이 없는 노스캐롤라이나주(NC)의 기분 좋은 애정공세를 받고 있는 NC다이노스 등 한국 야구가 본고장 미국에 연일 즐거움을 안겼다.

KOREA BASEBALL ORGANIZATION

방역물품의 수출 및 지원

체계적 지원이 가져온 win-win 효과

3월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에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의 수출 또는 지원을 요구하는 국가가 117개국에 달하였다. 수출 요청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이 숫자는,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및 기기에 대한 믿음이 한국산 방역물품 수요 급증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방역물자와 방역체계를 전 세계에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 대응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K-방역 자문에 보답하고자 국경 봉쇄에도 특별기를 띄워 한국 교민의 출국을 지원하였다. 이 특별기는 귀국 시 한국 진단키트 2만 개를 실어 출국하였다. 모로코 역시 한국산 진단 키트 수송용 정부 항공편에 우리 국민을 탑승시켰다.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물품을 지원한 대응 덕분에 교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모범 사례로 꼽힌다.

6월 초 카타르에서 전해진 소식은 특히 놀랄 만하다. 카타르 정부에서 LNG선박 100척을 수주하겠다고 전해온 것이다. LNG선박 100척 수주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무려 23조 원 수준. 3월 말 한국산 진단 키트를 요청해온 카타르 측의 SOS에 키트를 공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현지 의료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덕분이었다.

‘함께’의 가치, 위기에서 더욱 빛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경제위기가 현실로 닥쳤다. 소비가 줄자 기업은 위기에 빠졌고, 기업의 위기가 다시 서민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너나할 것 없이 어려움을 말하는 이 시기,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노사정 화합의 현장,
QR코드를 찍어 확인하세요!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한 성우 상생의 역사

코로나19발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혹자는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성우 43년 역사에도 위기는 있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가 대표적이다. 이름 난 대기업이 줄줄이 도산했고, 도산하지 않기 위해 직원을 내보냈다. 성우하이텍은 직원 감원 없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감원 대신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에 힘썼다. 연구소를 설립하여 대외 신뢰도를 얻었고, 노조도 상여금 200% 반납, 무교섭 임단협 실시 등으로 고통을 분담했다. 노조와 회사가 한데 뭉쳐 위기를 이겨냈다. 이에 화답하듯 2015년 이명근 회장이 본인 보유의 성우하이텍 주식 일부를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다. 이명근 회장의 이런 결정은 2000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회사 중 75위에 선정되기까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순수한 보상이었다. 법인의 최대주주가 전 직원에게 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성우하이텍, 아산성우하이텍 전 직원은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총 182만9천450주를 지급받았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6천만주의 3.05%에 해당한다. 이 같은 노사상생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노동부, 2001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2012),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 본상(GWP KOREA, 2013),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015) 등 각종 수상이력으로 이어졌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후회스럽게 닫힌 문을 바라보는
탓에 우리를 위해 열리는 문을 바라보지 못한다.
-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함께하는 고통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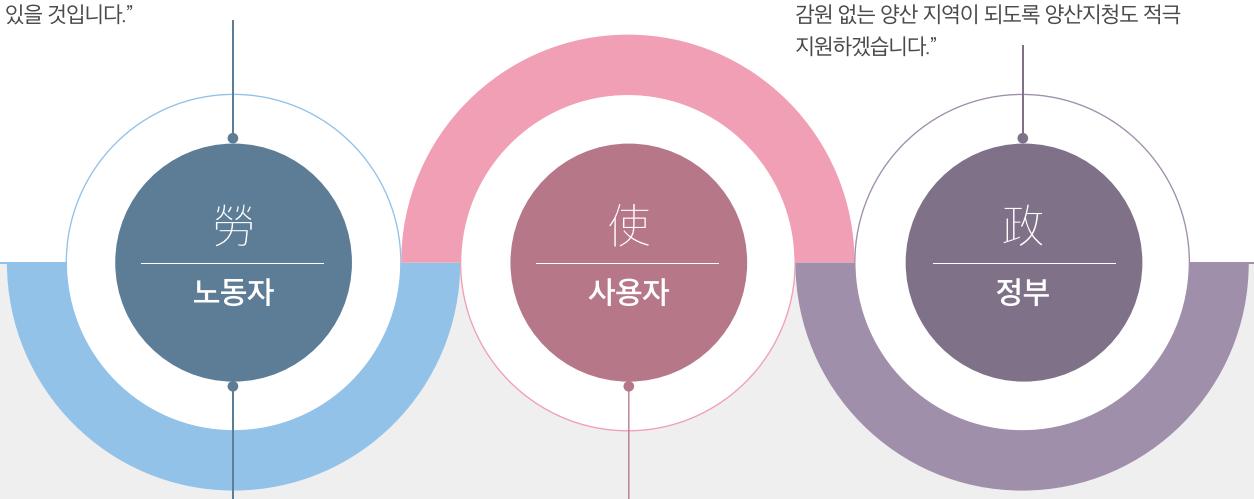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서 성우하이텍의 선택은 한결 같다. 양산시 '노사정 공동선언'에 적극 참여한 것도 그런 행보의 일환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양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마련한 '노사정 공동선언'은 매년 산업단지 위주로 진행하던 노사정 공동선언을 개별 기업과 노동자로 확산, 경남의 대표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노사민정·주요공단·기업노사의 공동선언이다. 이날 행사에서 회사와 노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감안해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핵심은 '함께'이다.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소비를 통해 기업을 살리는 일. 지역 대표 기업과 노조로서 서로를 배려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약속이다.

김근수 위원장

"노동자, 기업, 정부가 성숙한 자세로 서로를 배려한다면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올해 정부 정책이 고용유지에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기업과 노동자의 고통 분담이 절실합니다. 감원 없는 양산 지역이 되도록 양산지청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원석 건진테크(위탁협력업체) 대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준 성우하이텍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각종 지원금과 혜택으로 지원하여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자체,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각자가 힘을 모은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문용 대표이사

"회사 창립 이후 4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어려움을 이겨낸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힘을 합하면 코로나19 사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영환경에서도 노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산업과 새로운 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변해버려 아주 오래된 일이라 기억되는 작년 말, 모든 언론에서 자동차산업이 변할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냈다. 백여 년을 이어온 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카쉐어링 등 신기술 적용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현대자동차는 한술 더 떠 올해 1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 2020(국제 가전박람회)에서 우버와 손을 잡고 플라잉 택시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대와 전망

플라잉 택시는 말 그대로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는 5인승 정도의 초소형 수직 이착륙 전기 비행기를 의미한다. 이는 SF영화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날아다니는 교통수단을 현대자동차에서 향후 5년 안에 출시하겠다는 획기적인 선언이다. 같이 발표한 미래형 이동수단인 PBV(목적 기반 자동차)라는 생소한 이름의 비누 곽처럼 생긴 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형태였다. 전기자동차에 운전석도 좌석도 없는 형태의 자동차는 벽면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는 첨단 그 자체였다. 플라잉 택시와 PBV를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삼을 것이라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선언은 수많은 자동차산업 종사자에게 아주 낯선 모습으로 비춰

질 수밖에 없었다.

플라잉 택시에 우리가 생산하는 부품이 과연 얼마나 쓰일 수 있을까? 우리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미래전략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부품을 납품하면서 중요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현대자동차가 미래형 자동차로 바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부품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모두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잊혀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게 모르게 자동차산업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와이어링 하네스 수급문제로 완성차의 조업이 중단되었고, 모든 협력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연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활동을 강제로 중단하는 셧다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완성차와 부품의 해외 수출물량이 '0'으로 떨어져 5월과 6월에 또다시 조업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사태에 적극적 대응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수그러들거나, 하루빨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지나가게 되면 그동안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더 크게 확대되어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보복성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 예측한다. 자동차의 경우도 코로나가 유행하는 동안 판매되지 않았던 신차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그 대표적 증거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에 성공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판매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GV80, G80, 그랜저, 아반떼 등 최근 출시한 신차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무관하게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주문이 밀려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지나가게 되면
그동안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더 크게 확대되어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보복성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 예측한다.
자동차의 경우도 코로나가
유행하는 동안 판매되지
않았던 신차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HYUNDAI MOTOR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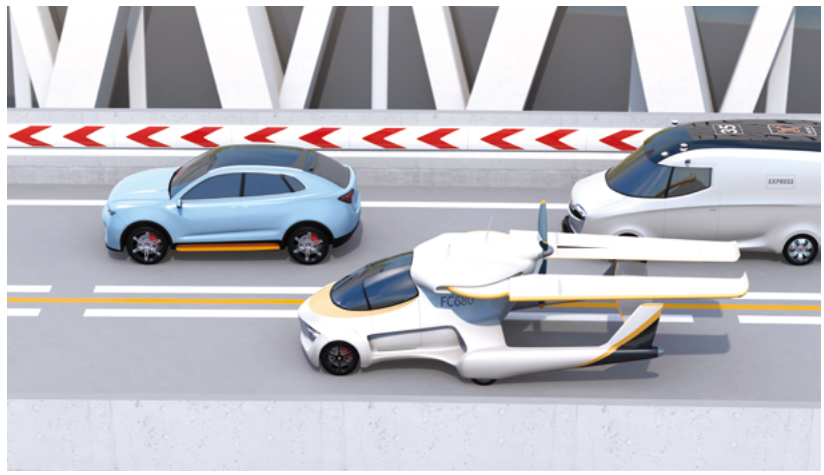
코로나, 미래형 자동차시장을 앞당기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줄어든 유럽 도시의 가로수들이 초록빛을 회복하고, 미세먼지로 찌들었던 중국의 하늘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상황을 겪게 되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6월 초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2배 이상 늘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전기차 시대를 독일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율주행 기능 장착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긴급 투입하여 생필품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운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운전자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으니 사람이 타지 않는 자동차를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량의 기능이나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산하는 부품도 기능이나 형태가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아직 어떤 형태의 전기자동차가 어떤 구조로 생산될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전기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도 기존 자동차의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벗어날 수는 없다. 전기로 움직이든, 인공지능이 운전하든, 어쨌든 자동차는 자동차라는 점이다.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다는 플라잉 택시도, 비누 곽 모양의 PBV(목적기반 자동차)도 결국 현대자동차의 기술로 만들어질 것이고, 자동차 기술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는 우리가 생산하고 납품하는 부품의 기능이나 형태가 변하더라도 근본적인 기술이나 부품조달 방식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량의 기능이나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산하는 부품도 기능이나 형태가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현재 생산되는 부품 그대로는 미래형 자동차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차량의 기능이나 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품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부품사에서는 크게 두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는 연구개발에 더욱 투자를 늘려 아이템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유한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관련 기술을 전기자동차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나아가 비행기인 플라잉 택시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다양한 생산방식의 변화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자동차의 변화 양상에서 부품의 경량화, 단순화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이다. 즉, 생산과정이 좀 더 복잡해지더라도 부품은 가볍게, 작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볼트로 조이는 것보다는 용접이나 융착 등으로 단단하게 붙이고, 3D프린터 등으로 복잡한 내부구조를 한 번의 생산공정으로 제조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FUTURE CAR MARKET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현대·기아자동차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에 일찍 성공한 덕에 내수 시장에서 역대급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고, 부품공급체계가 모두 살아있는 전 세계 유일한 완성차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완성차 기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판매와 생산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많아, 시장이 살아나더라도 2~3년 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신차에 대한 보복성 소비가 이루어질 경우, 현대자동차 그룹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도 있다. 하지만 미래형자동차 시장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부품 기업도 미래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한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길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길이며, 준비된 기업만이 앞장서서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경쟁자가 생존을 경쟁하는 험난하고 고된 길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이 펼쳐진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할 것인가. 선택은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백승렬 대표

현대자동차
고용안정위원회
자문위원,
공학박사, 기술사

자동차산업 전문가이다. 아주대학교에서 산업공학 박사를 받았고 인간공학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부터 현대자동차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간연속2교대제 설계, 생산인원 산정기법인 맨아워 공법 개선 등 자동차 생산공법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고용노동부 4차산업 정책위원, 일자리 위원회 전통산업분과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고용안정위원회 자문위원과 기아자동차 미래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친환경자동차와 모빌리티로 대표되는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계단왕"으로 전력비 절감과 건강을 동시에

성우하이텍 계단왕 선발

코로나19가 일상으로 파고든 지 반 년 남짓.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야외활동이 줄고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확찐자'가 되었다는 지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난다.
출퇴근 시, 혹은 일과시간을 잘만 이용해도 확찐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성우하이텍은 "계단왕" 선발 이벤트로 건강과 전력비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

카운터

하루에 10층 이상 오르면
살이 빠지는 캐릭터

기본 제공 캐릭터

하루에 사용자가
달성한 총 층수가
10층 이상일 때
한 단계 앞으로
3일동안 사용자가
달성한 총 층수가
0층인 경우 한 단계 뒤로

체크포인트

칼로리와 건강수명
랭킹까지 체크!

랭킹에 따른 저지

일간/주간 랭킹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
주간랭킹 1위인
계단왕에게는 골드 저지와
왕관이 수여된다.

나무 심는 계단왕

계단을 이용하면
탄소발생량이 줄어들어
나무를 심는 효과까지!

성우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사내 홍보물을 게시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매월 초에는 앞선 한 달간 계단 이용 실적이 우수한 세 사람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

성우인 계단왕 선발

>> 하루에도 몇 번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어느새 2, 3층에 갈 때조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출퇴근 시, 혹은 일과시간 이동 중 계단을 이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계단운동은 오랜 기간 검증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폐와 심장 기능이 강해지고, 하체 근육 강화를 통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관절염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운동이다.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사용을 줄여 에너지 절감을 통해 지구 환경 살리기에도 동참하게 되고, 자연스레 전력비 사용도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3월 25일, 성우하이텍은 전사 협조전을 발송하여 전 임직원 계단 사용을 권장하였다. 건강계단 이용 활성화와 직원들의 생활 속 걷기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계단왕 선발은 '계단왕' 앱(APP)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계단왕' 앱과 연계한 계단걷기는 운동 경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 장소에 제약이 없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개인의 활동 기록, 랭킹순위 등의 확인이 가능해 계단걷기 우수부서, 개인 계단왕 선정 등 계단걷기에 동기를 부여하는 콘텐츠를 갖췄다. 특히, 회사 내 계단 이외에도 집계되고 있어 근무시간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계단 오르기 효과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을 한번에!

효율적인 칼로리 소비

▶ **30분당 칼로리 소비량**
- 산책: 63kcal
- 걷기: 120kcal
- 계단 오르기: 221kcal

근력과 신진대사율 강화

주로 사용되는 척추와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근육 단련으로 혈당수치 조절과 신진대사율 증가 및 칼로리 소비를 돕는다.

인체 균형 능력 상승

한 발로 내딛기를 반복하며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다리 교대 운동으로 균형감각을 단련하고 유지할 수 있다.

혈액순환 강화

혈액과 산소의 순환기능을 원활히 해주며 아래로 내려간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근력 강화 효과로 심혈관계 건강을 돕는다.

BEST 계단왕

"계단왕"으로 전력비 절감과 건강을 동시에!

성우하이텍 계단왕은 한 달간 이용자가 오른 계단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첫 시행된 4월을 기준으로 4월, 5월, 6월 계단왕 9명이 선정되었다. 성우하이텍 초대 계단왕인 융합설계팀 최석준 책임은 4월 한 달간 총 6,481층을 오른 것으로 기록되었다.

1

융합설계팀
최석준 책임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에 제한이 있어 계단왕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유산소 위주의 운동만 하다 전신운동인 계단운동을 하면서 하체 근력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단운동에 참여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통합구매팀
염수영 과장

계단왕 이벤트에 참여하며 하루하루 운동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력비도 절감하고 개인 목표 의식도 생기고 건강도 챙기고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직원이 참여해서 건강한 성우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신차품질1팀
정기훈 부장

쓰러질 만큼 지칠 때에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단 오르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전력비 절감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월 계단왕

곰곰이 생각해보자.
'희망'을 제외하고서 당장 내일이 의미가 있는가?
- 클락 파크

5월 계단왕

1

생산기술1팀
전제헌 대리

평소 업무차 계단 이용이 많다 보니 어느새 계단왕 랭킹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전력비 절감과 동시에 개인 운동도 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

금형반
김홍경 조장

사내 전력비 절감 캠페인의 일환으로 계단왕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동하는 데 제약이 있었는데, 계단이용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캠페인을 많이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아산인사총무팀
이수승 차장

막내가 돌도 안 지난 시기라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제게 혼자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 특히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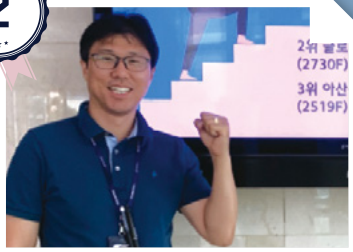
6월 계단왕

1

총무안전환경팀
주영민 사원

계단왕 걷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가 절약된 데 더해 제 삶에도 더 활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단 오르기를 생활화하여 성우와 제 자신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글로벌개발팀
정성원 과장

뭔가 바라고 걸은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걸었을 뿐인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져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걸어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기심에 앱을 설치해서 사용을 했는데 3등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건강도 챙기고 전력비절감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3

아산생산기술팀
김건영 과장

방구석 1열에서도 즐겁게~
코로나19를 보내는 특별한 방법

최대 4,000번 저어 만든 달고나 커피, 아이들과 베란다에서 즐기는 홈캠핑, 방구석 1열 영화관, 폭신폭신 부드러운 수플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던 지난 반 년, 집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SNS를 타고 화제를 모았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성우인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을까.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낸 다양한 성우인들의 모습을 만나본다.

FOLLOW MESSEGE

아산자재지원팀 함남기 과장

9개월 된 딸을 위해 테라스에 마련한 아빠 표 풀장입니다. 평소라면 문센(문화센터)을 이용했을 텐데, 아빠 표 풀장도 나쁘지 않네요. 아이가 처음에는 물을 낯설어했지만 제가 직접 안고 들어가 물에 적응하도록 도우니 금세 울음을 그치네요.

생산관리팀 강성진 대리

달고나 커피는 너무 흔하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프랜차이즈 빙수 도전!
베이스 얼음은 고소한 우유로 준비합니다.
강판에 얼린 우유를 곱게 갈아준 다음
콩고물과 연유를 곁들이면~
프랜차이즈 빙수 부럽지 않은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간단하고 힘도 들지
않으니 더운 여름 도전해 보시길!

생산기술1팀 박영민 과장

코로나19는 집안 잔치 풍경도
바꾸어놓았네요. 저희는 아버지
칠순 파티를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마련했습니다. 첫째 딸이 직접 그린
아버지 얼굴, 가족들이 정성 들여
쓴 편지는 액자에 담아 선물했고요.
잔치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물풍선
던지기로 더위를 날렸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준비하여 더욱
특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공정QC 정병진 기장

평소 캠핑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 코로나 시대에 맞이한 둘째 생일엔 좀 더 특별한 캠핑을 떠났습니다. 장소는 우리 집 거실. 준비물은 아이들이 들어갈 만한 작은 텐트면 끝입니다. 거실에 텐트 하나 폈을 뿐인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네요. 평소와 같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개발팀 진주희 사원

코로나19 보내기의 진수!

첫 번째, '3D 입체퍼즐 만들기'.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퍼즐 조립에 집중하다 보면 세 시간이 금방 지나간답니다.

두 번째, 밀키트[1]로 간단히!
코로나19 이후 간편히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가 유행이죠. 배가 고파질 때쯤 인터넷으로 미리 시켜놓은 밀키트를 이용해서 점심을 직접 해먹어요.

까다로운 마라롱샤도 짧은 시간에 뚝딱! 따로 장을 볼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1.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 조리 전 냉장 상태의 신선 식재료를 배송하며, 소비자가 동봉된 조리법대로 직접 요리한다.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하는 시간이 절약돼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로부터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아산생산관리팀 김원희 과장

사람 많은 시설에 가기는
꺼려지지만 바깔활동을 하고
싶다면? 차박을 추천합니다!
활동적인 딸이 답답해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가족 모두
푹 빠졌네요. 차에 누워서 밤하늘도
보고, 아침에 새소리도 들으며
일어나고~ 자연 속에 푹 묻혀
하루를 보낸 우리 가족의
주말 풍경입니다~

글로벌개발팀 이효상 사원

사람 많고 복잡한 도심을 피해
외곽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부산 기장의 '라벤더 팜'인데요.
방문했을 때엔 제철(6월 중순)이
지난 시기였지만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라벤더의 향긋함이 여전히 기억에 남네요.
물론 방문 때엔 '마스크 필수'입니다!

품질경영팀 이동근 사원

혼자 떠나기 좋은 차박. 어느 때는 강가이기도,
어느 때는 바닷가, 숲길이기도 합니다. 경치 좋은 곳에
차를 세우고 하룻밤 머물면 거기가 천국이네요.
시원한 맥주와 맛있는 음식, 그림 같은 풍경이
함께하는 차박의 매력에 빠져보실까요~

당첨을 축하합니다
(커피교환권 지급)

- 아산생산관리팀 **김원희** 과장
- 생산기술1팀 **박영민** 과장
- 공정QC **정병진** 기장
- 글로벌개발팀 **진주희** 사원
- 아산자재지원팀 **함남기** 과장

‘호감 가는 동료’와 ‘꼰대’의 차이를 만드는 직장인 스킬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중 월 1회 이상 당한다는 응답은 21%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결과이다.
직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다거나 강제 야근, 회식자리 술 강요,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남녀 근로자 사이의 성희롱 등 언어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흔히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 법 시행 1년을 맞이하였다.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의무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 1년을 맞이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7월 14일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법 실효성 개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서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5.4%가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꼰대'와 '요즘 애들'

이 같은 부정적 요소들은 자연히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회사에도 피해를 끼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전에 최근 종영한 드라마 한 편을 살펴보자.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 <꼰대인턴>. 이 드라마는 '갑을 체인지'라는 극화된 설정을 통해 갑을 관계를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풍자하여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 꼰대, 갑질, 비정규 계약직,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슈를 담아내어 공감을 이끌어낸 것이다.

꼰대 [명사]
1.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2.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

꼰대, 사사건건 옛일만 들먹이며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이 단어가 드라마 제목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5년 전 부장-인턴으로 만났지만 현재 관계가 반전된 시니어 인턴 이만식(김응수분)과 마케팅 영업팀 부장 가열찬(박해진분). 만식은 이른바 꼰대의 전형이다. 자신보다 어리면 일단 말을 놓고, 툭 하면 "내가 너만 할 때는!"을 찾으며,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하고서는 본인의 의견이 까이면 부르르 떠는 답정너에, 안 먹히면 '그냥 좀!'으로 해결, 인생선배로 조언을 해주겠고 사생활을 캐물으며 친한 척까지! 만식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들은 또한 이렇게 살아왔다. 언제나 회사가 1순위,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런 기성세대에게 '90년대'생들로 대표되는 '요즘 애들'은 낯설고 어렵다. 회사와 개인생활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솔직하게 주장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의사표현에도 거침이 없다. 기성세대들은 본인의 젊은 시절과는 너무 다른 이들 모습에 혀를 끌끌 차면서도, '혹시 내가 꼰대가 아닌지'를 고민한다. 그러는 사이 조언은 잔소리가 되고, 업무 지시는 강요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생각지 못했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라떼(나 때)는 말이야~"

꼰대 자가 테스트

①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한다.

②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③ 요즘 젊은이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 탓, 불평불만만 하는 건 사실이다.

④ "○○란 ○○○인 거야" 식의 진리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⑤ 버스나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젊은이에게 "비켜라"고 말하고픈 충동이 인다.

⑥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반사적으로 그의 단점과 약점을 찾게 된다.

⑦ "내가 너만 했을 때" 얘기를 자주한다.

⑧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⑨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유명 연예인 등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꾸 얘기하게 된다.

⑩ 커피나 담배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아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가 불쾌하다.

⑪ 낯선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에게는 친히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⑫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

⑬ 옷차림이나 인사예절도 근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지적할 수 있다.

⑭ 내가 한때 잘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⑮ 연애사와 자녀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⑯ 회식이나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⑰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⑱ 미주알고주알 스타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한다.

⑲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⑳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뭘 배워본 적은 없다.

[테스트 결과]

0~3개
성숙한 어른이시네요~

4~7개
꼰대의 싹이 보이는군요!

8~15개
꼰대 경계경보 발령!

16~20개
자숙기간이 필요합니다.

※ 참조: 창의리더십센터 보고서 <How to Be the Boss without Being the B-word(Bossy)>

동료나 선배들보다 더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대신,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라.
- 윌리엄 포크너

직장 내 소통의 핵심, 차이를 이해하라

문제의 근본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차이다. 이제껏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럴 때 "꼰대 같아" 혹은 "요즘 애들이란" 같은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태도가 옳을까.

직장 동료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며 공통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동료를 적대시하기보다는 팀워크를 발휘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앤드류 카네기는 "팀워크는 공통된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는 능력이며 조직의 목표를 향해 개인이 성과를 내도록 지휘하는 능력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이루도록 만드는 에너지원이다"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평범한 우리가 비범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팀워크를 발휘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기성세대부터 과거에서 벗어나 바뀐 현실을 인정하고 부하직원은 기성세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부하직원을, 답답한 상사를 동료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려는 열린 태도다. 소통방식을 바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설득, 조언, 오지랖, 꼰대 짓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똑 소리 나는 직장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쉬운 단어'로 명확히 전달하기

문장이 길어지고 말이 어려워질수록 핵심은 흐려진다. 어려운 단어나 문장보다는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전하는 것이 좋다.

'신체 언어' 사용하기

때때로 구구절절 설명보다는 오케이 사인 한 번이면 끝! 말로는 전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손짓, 몸짓 등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경청'하기

의사소통은 독백이 아닌 대화에서 시작된다. 우선 상대의 말을 잘 듣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경청해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메모'의 습관화

상대방의 메시지와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들을 메모하며 대화한다면 체계적이고 수월한 소통이 가능하다. 정확한 메지지 전달이 어렵다면, 먼저 스스로의 생각을 메모한다.

명확하고 깔끔한
의사소통으로
소통은 UP!
불통은 DOWN!

출처: 고용노동부

아싸 혹은 인싸?

나는 어떤 유형일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마련이다. 고구마 백 개를 물 없이 삼킨 듯 대화하는 족족 답답함에 가슴을 치게 하는 사람도, 짧은 말 한마디로도 다음 대화가 술술 이어지는 사람도 있다.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면 환영이겠지만 정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할 수만도 없는 일. 이럴 때엔 상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영업팀 A 대리

팔로워 부자 파워 인플루언서[1]

▷ 최근 SNS에서 유행한 '아무노래 챌린지'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며 팔로워들의 좋아요 세례를 받았다.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그런 반응이 좋아서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 A 대리의 활동은 SNS 공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주말이면 각종 모임 약속이 줄을 서 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데 거리낌이 없고 부담도 없으며 그런 활동을 통해 힘을 얻는다.

구매팀 P 사원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집순이

▷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조용한 성격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억지로 웃고 놀고 어울리는 것이 가장 큰 고통. 남들과 오래 어울리면 꼭 혼자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도 퇴근 후 집에서 갖는 혼자만의 시간이다. 책을 읽거나 혼자 영화를 보면 저절로 에너지가 차오르며 힐링이 된다.

너무 다른 두 사람, 차이는? >> 두 사람은 최근 많이 쓰이는 인싸(인사이더·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와 아싸(아웃사이더·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의 전형이다. 함께 어울리기에는 너무도 다른 두 사람. 이러한 차이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분석심리학자 칼 융은 '심리적 유형'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다.

1.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한다.

칼 융의 심리적 유형

칼 융은 '자아성향'과 '심리적 기능'이라는 두 가지 잣대를 근거로 인간심리(성격)을 나눈 '심리적 유형' 개념을 정리했다. 먼저, 자아성향은 삶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말하는데, 자아가 외부세상에 지향하는 방향이 수동적인 경우를 내향성, 능동적인 경우를 외향성이라고 하였다. 심리적 기능은 '사고', '감정', '직관', '감각' 등 네 가지 기능을 말하며, 개인은 외부세계와 내면세계를 지각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이 네 가지 요소를 사용한다. 어떤 기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기능을 비교적 덜 사용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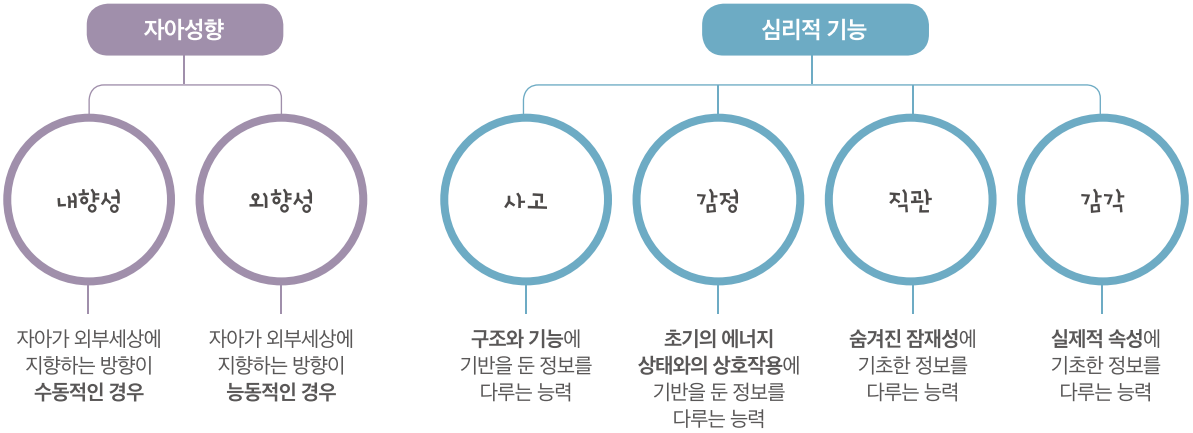
사고는 구조와 기능에 기반을 둔 정보를 다루는 능력, 감정은 초기의 에너지 상태와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정보를 다루는 능력, 감각은 실제적 속성에 기초한 정보를 다루는 능력으로 세부적인 정보의 영향을 받으며, 직관은 숨겨진 잠재성에 기초한 정보를 다루는 능력으로 가능성을 본다. 이러한 두 가지의 태도와 네 가지의 심리적 기능을 조합하여 융은 심리적 유형 혹은 성격유형을 외향적 사고형, 내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각형, 내향적 감각형, 외향적 직관형, 내향적 직관형의 여덟 가지로 구분하였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줄임말로, 이러한 칼 융의 심리적 유형을 토대로 만든 성격 유형 검사 툴이다.

TIP

잠깐!

편견은 금물!

사람이란 복합적인 존재로,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면을 동시에 갖는다. 다만 좀 더 내향적이고 외형적인 경향성만 있을 뿐이다. 융 역시 자신이 구분한 4종류의 성격 유형이 엄격히 분류되지 않고 대강의 경향성만을 띤다고 밝힌 바 있다. 16가지 성격유형검사가 어떤 사람을 파악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거나 편견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성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다.



16가지 성격유형검사

MBTI와는 다르지만 성격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검사 툴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다. QR코드를 찍어 '16가지 성격 유형 검사'를 해 보자. 나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고, 또 동료는 어떤 사람인지 검사를 통해 알아본다면, 상대의 성격을 파악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꿈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다

절망 속에도 희망은 있다. 꿈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찾아온다. 인종차별을 딛고 역사적 족적을 남긴 흑인 여성 공학자들, 두려움 속에서도 날갯짓을 멈추지 않고 화려하게 비상한 재투성이 소년. 세상의 편견과 제약을 깨부수고 멋지게 날아오른 주인공들을 만나본다.

* 이미지 출처_구글 이미지, IMDb

히든 피겨스

차별과 냉대 이겨낸 위대한 꿈

미국사회를 뒤흔든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과 그로 인해 유발된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캠페인에서도 드러나듯, 인종차별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미국의 사회문제이다. 더구나 60년대의 미국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흑인은 전용 화장실을 써야 하고 그들과는 커피포트조차 함께 쓰길 꺼려하며 공공도서관에도 흑인 전용 코너가 있던 시대. 주인공들 앞엔 인종차별에 더해 능력을 한계 짓는 유리천장[1]까지 펼쳐져 있다. 차별과 멸시가 당연시되던 시대 상황 속에서도 주인공들은 한계를 깨부수고 당당히 꿈을 펼쳐나간다. 초기 컴퓨터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나사가 고용한 수학 천재 캐서린(타라지 P. 헨슨분)과 나사 최초의 흑인 관리자가 된 도로시(옥타비아 스펜서분),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항공 우주 엔지니어 메리(자넬 모네분)이다. 1957년 10월 4일.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가 우주로 나아갔다. 인류 역사에 기록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스푸트니크가 지구 궤도에 안착하는 것을 마냥 웃으며 볼 수 없는 국가가

1. 여성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제용어이다.

있었다. 소련과 대척점에 서 있던 미국이다. 미국 우주 개발의 중심축이었던 나사 연구원들에게는 지상과제가 내려진다. 소련보다 앞서 유인 우주선 발사를 성공할 것. 지구 궤도의 복잡한 수치 계산이 관건이었다. 천재 수학자 캐서린은 나사 최고의 연구소에 배정받고 능력 발휘의 기회를 잡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여성 직원들에게만 해당하는 복장 규정-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하이힐에 무릎을 덮는 치마, 블라우스보다는 스웨터, 진주 목걸이를 제외한 장식구 착용 금지-부터 그를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자행되는 냉대, 800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종종걸음을 해야 겨우 이용할 수 있는 흑인 전용 화장실…. 캐서린은 오직 실력으로 이 모든 한계를 정면 돌파한다.

도로시는 능력은 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밀려나 주임 대행만 1년 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시종일관 당당하다. 컴퓨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일자리를 잃을 위기 상황에서 도로시는 도태되기보다 IBM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새 시대를 대비한다. 메리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그의 꿈은 나사에서도 금녀의 영역으로 꼽히는 엔지니어. 나사 엔지니어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강의가 이를 가로막는다. 오직 백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듣기 위해 메리는 주법원에 청원을 내고 입학 허가를 받는 근성을 보인다.

영화는 나사의 입지적인 인물이 된 세 사람의 도전과 현실적 한계, 이를 타파하는 거칠 것 없는 행보를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전한다. 도로시가 아이들과 함께 공공도서관을 찾았다가 흑인 전용 섹션을 이용하라는 주의를 들은 후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은 영화의 주제를 관통한다.

"차별과 평등은 다른 거야.
모든 걸 당연하게 보면
바로잡을 수 없어.
옳은 행동이면 옳은 거야.
그게 확실한 거지."

Figures

"춤을 출 땐 어떤 기분이니?"
"몰라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모든 걸 잊게 되고.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몸 전체가 변하는 기분이죠.
마치 몸에 불이 붙은 느낌이에요.
전 그저 한 마리의 나는 새가 되죠.
마치 전기처럼. 네, 전기 말이에요."

빌리 엘리어트

재투성이 소년, 백조로 비상하다

11살 소년이 있다. 빌리 엘리어트. 광부인 아버지와 형,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다. 평생 광부로 살아온 아버지는 탄광산업 몰락으로 인한 정부의 탄광 폐쇄와 인원 감축에 맞서 파업에 참여하는 강경한 성격이다.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 지도부 형 토니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탄광 일밖에 모르는 이들 부자에게 희망이란 뜬구름 잡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 빌리는 그런 아버지나 형과 달리 유약한 소년이다. 할아버지의 글러브를 물려받아 '남자다운' 운동인 권투를 배우고 있지만,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소질도 없다. 그런 빌리가 최근 관심을 가진 것은 발레.

또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실행하라.
그리고 더 나은 실패를 하라.
- 사뮈엘 베케트

Billy Elliot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발레는 여자나 배우는 것이라는 아버지께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첫눈에 흥미가 생겼다. 자신의 소질을 알아봐준 스승을 만나며 빌리는 가슴을 졸이면서도 점점 발레에 빠져든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빌리가 두려움을 깨고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다. 보수적이고 희망 없는 사회 분위기처럼 어둡게 가라앉은 체육관. 빌리의 앞에는 눈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무서운 아버지가 있다.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만 어려운 집안사정과 발레를 반대할 아버지가 무서워 빌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 한다. 그런 아버지를 앞에 두고 빌리의 독무가 시작된다. 절실히 원하는 바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어 보이는 빌리의 춤사위는 간절하기까지 하다. 체육관을 누비며 춤을 춘 빌리는 마침내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동작을 한다. 시선은 곧장 아버지를 향해 있다. 빌리의 간절함이 아버지의 단단한 가슴을 파고든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희망이 아이의 속에서 움트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그의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는 결국 굳은 신념과 자존심 버리고 '파업 파괴자'를 자처한다.

이처럼 영화는 단순히 꿈을 가진 한 소년을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을 알면서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신념을 꺾은 아버지의 선택은 소년의 꿈만큼이나 위대하다.

여행 문화의 뉴 노멀,
자동차 드라이브 여행!

Traveling by car drive!

거리두기의 생활화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다.
여행에도 뉴 노멀이 제시된다.
'SAFETY(안전)'여행은
▲근거리(Short distance)
▲야외활동 포인트(Activity)
▲가족 단위(Family)
▲자연친화(Eco-area)
▲인기 관광지(Tourist site)
▲관광 수요 회복 조짐(Yet·아직)을 뜻한다.

드라이브 여행이나 차박, 오토캠핑은
자가용이나 렌트카, 혹은 캠핑카 등을
이동수단이자 개인공간으로 활용하며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
자동차는 교통수단을 넘어 개인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SAFETY)한' 당일치기 드라이브
여행으로 움츠러든 몸과 마음의
기지개를 펴 보자.

내면의 정신 태도를 바꾸면 삶의 외적 양상을 바꿀 수 있다.
- 윌리엄 제임스

"세계는 한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단지 책의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세계'라는 책의 어떤 페이지든 자유롭게 여행하는 대여행 시대를 살아왔다. 여행은 여행자와 여행지의 '접촉(Contact)'이다. 이러한 접촉은 인류의 문명과 사유를 확장시킨 주요한 원동력이었다. 현대에는 개인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한다.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접촉'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여행 역시 적극적 접촉이 아니라 거리두기를 필수로 여겨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제는 마음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블루'[1] 에 대하여 지혜를 발휘할 때다. 장기간 이어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람들에게 자칫 마음의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여행은 마음을 쉬게 한다. 여행은 현명한 '마음 방역'활동이다.

드라이브 여행 팁

▶ 여행 준비단계

1) 준비물: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알코올 티슈, 돗자리, 간편 도시락(김밥, 과일 등), 부채
2) 드라이브 코스 정하기: 공원, 해안가 등 트인 쉼터 확인. 주변 음식점 환경 알아보기
3) 여행 지역의 컨디션, 뉴스 찾아보기: 숨은 명소를 찾거나 여행자 동선 확인

▶ 여행 중

1) 열이 있는 경우 일정을 취소한다.
2) 산책, 경치를 감상할 곳을 미리 파악하여 산책, 소풍을 즐긴다.
3) 식당이나 시설 이용 시 사용하는 개인 공간은 준비한 소독 티슈 등으로 방역을 실시한다.
4) 가급적 손 소독을 자주 하고 위생수칙을 준수한다.
5)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자연친화적인 체험을 즐길 것. 카페는 테라스를 이용한다.

▶ 여행 마무리

- 돌아와 열을 체크한다.
- 깨끗이 씻고, 입었던 옷은 세탁한다.
- 여행일지를 작성한다.

1.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드라이브, 거리두기, 해안가, 당일치기, 눈부신 햇살과 상쾌한 바람,
부서지는 하얀 유리알 같은 파도를 벗 삼는다.
수목이 선물하는 피톤치드 속에서 산책과 명상을 즐긴다.
이런 '힐링로드'는 근거리에 얼마든지 있다.
언제부턴가 쉽게 다니게 된 해외여행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힐링로드'는
무심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흙속 진주 같은 드라이브 명소를 소개한다.

동해의 힐링로드 7번 국도를 따라 떠나는 드라이브 스루 여행

Healing Road

東海

추천 하나!

파도를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새천년해안도로와 추암촛대바위

청정 여행지로 그저 해안도로를 달기만 해도 코로나 블루를 날려버릴 수 있다. 자연이 깎고 다듬은 기암괴석과 우거진 송림이 어우러져 멋진 경관을 연출한다. 삼척해수욕장 입구에서 정라항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4km로 거리다. 바람이 거센 날은 파도 맛집이다. 드라이브 스루로 주문한 듯 창문만 열면 파도의 파편이 손에 잡힐 듯하다. 기어이 해안도로를 넘고야 말겠다는 듯 파도가 솟구치면 햇빛이 마중 나와 유리구슬을 뿌려준다.
새천년해안도로에는 공원이 두개나 있어 바다의 절경을 감상하며 쉴 만하다(비치조각공원, 새천년해안유원지). 소망의 탑과 바다를 끼고 도는 비치조각공원 덕에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추암촛대바위

코스

삼척해수욕장(인근에 추암촛대바위) → 비치조각공원(마린데크카페) → 새천년소망의탑, 새천년해안유원지 → 정라진(삼척)방파제 → 삼척항 → 7번 국도를 타고 맹방해수욕장

맹방해수욕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7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맹방해수욕장이 나온다. 마치 하롱베이의 한 조각을 떼어 옮겨놓은 듯 해안의 기암괴석이 장관이다.

새천년 해안도로

강릉 헌화로는 새천년해안도로와 패키지로 '스루'해야 할 드라이브 코스로 도로와 해안이 맞닿은 이국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드라마 <시그널>에서 소개된 바 있다.

추천 둘!

해와 바람 그리고 멍때리기

영덕대게로

7번 국도를 시원하게 달린다. 삼사리 작은 해안 마을에 삼사해상산책로가 있다. 산책로를 걸으며 코발트 빛 수평선을 눈에 담는다. 다시 국도를 따라 가다가 강구항으로 들어서면 영덕대게로가 시작된다. 해파랑공원에서 도시락을 먹고 소풍을 즐기기에도 좋다.

코스

삼사리(삼사해상산책로) → 삼사방파제(방파제와 등대포구 펜션) → 동해대로(7번국도) → 강구항 대게마을 → 영덕대게로 300m → 영덕해파랑공원 300m → 카페봄(바닷가커피) → 영덕대게로(9km) → 영덕해맞이공원 → 경정항

영덕해맞이공원

삼사해상산책로

경정항

영덕 해맞이공원

카페봄

영덕해파랑공원

강구항 대게마을

삼사방파제

삼사리

다시 9km 정도의 해안도로를 드라이브 하면 영덕해맞이공원이 나온다. 오메가(Ω) 모습으로 솟아나는 아침 해를 맞이하기에 그만이다. 굳이 해 뜨는 시간에 오지 않아도 경치가 기가 막힌다.

공원을 벗어나 300여 미터를 걷다보면 동해를 향해 시원하게 오픈된 카페가 보인다. 커피 한잔을 시켜 놓고 동해바다를 향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만 보자.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유 모를 칭찬을 해준다. 커피는 그저 눈 앞 프레임과 향기를 위한 소품이다. 잠깐의 멍때림은 동해를 명작 삼아 깊은 사색에 잠긴 것과 차이가 없다. 잠시 내려놓음으로 커다란 위안을 얻을 것이다.

영덕해파랑공원

자연재해와 인류의 비극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구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용기 덕분이다.
- 제인 애덤스

추천 셋!

포구마을 ASMR

월포해수욕장~ 장사해수욕장

월포에서 장사리로 이어지는 해변에는 인파가 몰리지 않는다.
조용한 분위기의 알려지지 않은 드라이브 코스다.
좁은 해안도로이니 천천히 드라이브를 즐기자.
해안가는 도로와 맞닿아 있다. 조용한 곳이라 반대로 해안가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온다. 차를 세우고 조용한 어촌 포구의
소리를 만끽하며 스마트 폰으로 소리를 담아보자.
방어리 포구에 묶여있는 작은 어선에 바닷물이 촐싹거리며
귀찮게 하는 소리, 조사리 갈매기들의 수다, 간이 해변에는
조약돌과 파도가 만들어내는 합창이 귀를 간지럽힌다.
장사리해수욕장 모래 해변을 뛰노는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사랑스런 웃음소리도 새롭고 신선하다.

장사해수욕장

방어리

코스

월포해수욕장
→ 방어리(포구마을)
→ 조사리(간이해변+펜션)
→ 화진리(해수욕장+펜션)
→ 동해대로 타고 조금 더 가면 장사해수욕장
(장사리전승기념관)

간이해변에
타프(tarp) 등을 이용해
그늘을 만들고 지그시
눈을 감아보자.
그런 다음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절로 힐링이 될 것이다.

조사리

감 염 병 예 방 의 비 밀

면역력을 높여라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놓았으며 기본체력, 면역력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그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정도 줄고 혈액순환도 방해한다. 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더 깔끔하고 밝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자기 자신이 바로 세상을 보는 창이다.
- 조지 버나드 쇼

免疫力

감염병 예방의 비밀

면역력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적인 기저질환에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식생활과 매우 밀접한 대사질환들이 속해있다.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

□ 찬 음식 / 밀가루 음식 멀리하기

퇴근 후 즐기는 시원한 맥주와 프라이드치킨. 치맥은 여름에 더욱 간절해지는 '꿀조합'이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 찬 음식의 냉한 기운은 위나 장의 기능을 저하한다. 튀김옷에 쓰이는 밀가루 역시 마찬가지. 간편식으로 많이 찾는 빵이나 라면 등보다는 현미밥이나 발효음식 등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권장한다.

□ 반신욕이나 족욕하기

체온보다 조금 높은 36~40℃의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족욕도 면역력을 높이고 지방이나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 배 따뜻하게 하기

단전이 자리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 기가 돌면서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이로써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따뜻한 차를 즐기거나 복근운동, 복식호흡을 생활화하여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면역력을 낮추는 음식

□ 입 즐거운 '단짠', 면역기능엔 쥐약

소금과 설탕은 대사질환 위험을 높이는 대표주자들이다. 소금은 고혈압 발생을 높이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면역계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설탕은 면역세포 기능을 감소시키며, 때문에 WHO는 설탕의 하루 섭취 양을 25g(각설탕 12개)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권장한다.

□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다

장(臟)은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주 중요한 기관으로,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장 건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좋다. 식이섬유가 장내 유산균의 먹이이기 때문.

□ 숙면 방해하는 과음, 카페인 섭취

과음과 카페인은 숙면을 방해해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많은 연구자들이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 또한 수면을 방해하면서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카페인이 함유된 홍차나 녹차도 마찬가지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최소 취침 6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다.

* 참고: 중년 건강 백과(오한진 저, 지식너머, 2016)

성우인, 당신들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지난 6개월
성우하이텍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성우인들 “덕분에” 코로나19의 높은 파고를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
다시 한 번, 성우인의 단합된 힘을 믿습니다!

SUNGWOO HITECH

국내

㈜성우하이텍
정관공장, 서창공장, R&D센터, 금형공장, 코일센타, 지사공장, 핫스탬핑, 서울사무소, 수원연구소
㈜아산성우하이텍, ㈜성우홀딩스

해외

북경법인, 심양법인, 연태법인, 창주법인, 무석법인, 염성법인, 충칭법인, 인도SHI, 인도SSP, 인도SHAP,
우즈베키스탄법인, 체코법인, 슬로바키아법인, 러시아법인, 독일WMU, 독일WMU B,
멕시코법인, 미국사무소